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스무 살 넘어야 어른되는 것이 아니라  
수채구멍에 찔린 머리카락을 내 손으로 꺼낼 수 있을 때 어른이 된다는 것을

군대에 다녀왔다고 다 철드는 게 아니라  
변기통에 묶은 똥찌꺼기를 어머니 대신 닦아 낼 때 철이 든다는 것을

돈 많은 사람이란 하루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벌고 남은 돈으로 자기의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무시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올 한해도 묵상이나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이 내 벌는 욕설의 정도가  
자신의 인생의 정도라는 것을

이를 닦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알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을

향수를 뿌려 멀수록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란 새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옛 친구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란 것을

구두가 더러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다는 사실을

비밀 하나를 지켜주면  
친구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란 것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감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6월 12일
☎ 369- 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www.calvary.org.nz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드린 9가지 감사



1948년 여순사건때 공산주의자에 의해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28일 손양원목사님의 장례식 후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맨뒤의 학생은 손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씨를 1948년 여순사건때 총으로 쏘 죽였던 안재선씨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재판정에 호소해 살려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동인, 동신을 대신해서 말상주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손양원목사 사모님, 안고 있는 아들은 손양원목사님이 돌아가신 날 새벽에 태어난 손동길 목사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은 둘째 딸 동임, 재 딸 동연.

1. 나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 드립니다.
4.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6.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9.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감사합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품따라 행하기▶

남편을 지위나 수입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남편은 정신적 지주여야 한다

◀그뎌 그랬지▶ 보행위반자 단속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는 보행자 위반 단속. 신호를 기다리거나 멀리 있는 횡단 보도를 찾아 건너기엔 너무 먹고 살기에 바빴던 시절, 무단횡단 위반에 걸리면 보기에 어설피게 만들어 놓은 위반자 벌칙 계도소에 약 30분정도 서 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아가씨들은 부끄러워 했지만 대부분은 빨리 시간이 지나 나가기 기다리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과 함께 3대단속이던 보행자 단속도 이제는 따뜻한 추억속으로 남아있습니다



1975. 12. 18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79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3 (시 150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찬 송 Hymn	545장	
기 도 Pray		정희자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열왕기하5:1-14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엘리사와 나아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91장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6월의 예배위원◆

### ◆6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	은심자가
5	정덕수	김용석	7구역	구역장, 인도, 담당
12	정희자	김영경	8구역	나무십자가
19	지찬영	김윤숙	항존직	나무십자가
26	최재학	김인희	9구역	나무십자가

	주 일	예배와 모임
5	성찬주일	구역예배(10)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식사친교주일	
26	이삭줍기주일	선교회, 당회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 (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 (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 (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6:00	청년부: 토 저녁 4시

- 교우소식
  - \*<이사> 김창식. 민광자 집사 ☎ 623-1599 35 Arcadia Rd. Epsom
  - 임세영 집사. ☎ 027-276-2486. 36 Gold St. Albany.
  - 최득수, 오지영 집사 ☎ 483-2933 2/61A Birkdale Rd. Birkdale
- 나무 십자가 성가대
  - \*그동안 은 십자가성가대로 영광을 돌리고 가슴 뭉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자원하여 구성된 "나무십자가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를 가슴에 담겠습니다. <성가대 봉사 문의: 최득수 집사, 권정호 총무, 신경화 집사>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4일(화) 오후 1시, Hall>
  - \*여성교우들의 기도모임입니다. 나의 계획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의 능력에는 상상치 못할 응답이 있습니다.
- "건강한 갈보리교회를 위한 위원회"
  - \*위원: 이광희 장로, 최재학 안수집사, 지찬영 권사
  - \*갈보리교회를 위한 여러 제안과 의견 창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건강한 우리교회를 위한 의견들을 본 위원회 위원들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청년1부 예배 (70년생-79년생) <17일 저녁 6:30 Hall>
  -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일구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이 체험하세요. (문의: 김경일 집사 027-209-9379, 김대현 021-608-843)
- "추운 날의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27일(월)-31일(금), 새벽 5:55분>
  - \*아무리 추워도 인생의 난관과 도전에는 쉼이 없더군요. 추위에 웅크리며 기도하던 그날의 새벽, 응답을 위해 추위를 녹이는 간절함이 있는 새벽에의 기도를 갖겠습니다.
  - \*개인기도를 위한 예배당 문 Open 5:20분
- 오늘 Tea Time은 마오리교회 행사관계로 예배당에서 갖습니다

◀착한 시인들▶ 내가 좋아하는 것  
유자효

"착한 아기 잠 잘자는 베개 머리에....."

눈 내리는 밤의 고요  
호롱불 아래의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

어머니와 함께 살던 가난의 나라  
눈물도 많았지만  
이웃도 많았던 따뜻한 나라

라디오에서 들리던 옛날 성우의 씩 목소리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그리움은 여인의 눈웃음 같은  
동그스름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름다워져 있다면  
예전의 나는 아름다움을 위한  
충실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은 아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훗날의 나를 아름답  
게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훗날 내가 더 많은 그리움을  
갖기 위해 오늘은 나를 아름답  
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